“명당에 묘 써도 덕을 쌓아야 발복”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15〉

■도선국사의 풍수사상

영암은 한국 풍수지리의 비조(鼻祖)인 도선국사가 태어난 도학(道學)의 고장이다. 도선국사는 신라의 국운이 쇠퇴하고 있던 흥덕왕 원년(서기826년)에 도갑사 아래의 성기동에서 태어났다. 낭주 최씨 집안의 한 처녀가 빨래를 하다가 떠내려 오는 외를 먹고 임신을 했다고 하며, 이에 처녀의 부모가 딸을 크게 책망하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대나무 숲에 내다 버렸는데, 7일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 비둘기가 날개를 펴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신령(神靈)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곳을 구림(鳩林)이라 불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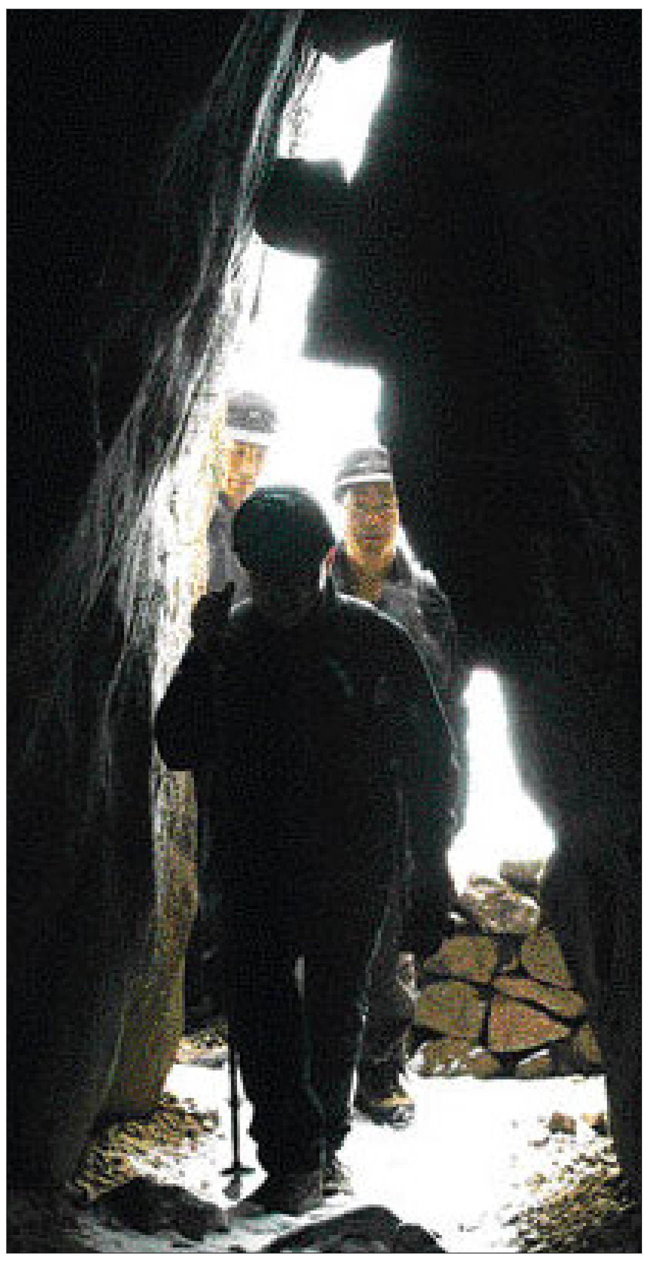
최유청(崔惟淸1095~1174)이 지은 도선국사 비문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 강씨가 처녀의 몸으로 꿈에 “어떤 도인이 영롱한 구슬 한 개를 주어 삼켰는데 수태를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도선국사가 태어난 신라말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으로 인하여 힌두교적인 밀교가 대단히 성행했다. 그것은 불교와

곡성 태안사서 풍수지리 입문

도교는 물론이고 민속과 민간신앙까지도 밀교의 한 지붕 아래로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밀교와 통합되고 화학적으로 융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신앙을 아우르는 통합종교로서의 밀교는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지령사상(地靈思想)’과 ‘화엄’을 융합시킴으로써 미륵정토를 희구하는 일반 백성들과 왕실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15세에 지리산 화엄사로 출가한 도선은 20세 때에 동리산(桐裏山) 태안사 혜철(785~861)스님의 문하로 들어갔다. 지리산 구령에서 잠시 기거할 암자를 짓고 있을 때 한 이인(異人)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 밖에서 숨어 산 지가 수 백년이 되었다. 내게 조그마한 술법이 있어서 그것을 스님께 드리려하니, 천하고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뒷날 남해의 물가에서 가르쳐 주겠다. 이 역시 대보살이 세상을 구하고 인간을 제도(濟度)하는 법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라졌다. 이를 기이하게 생각하고 남해의 물가를 찾아갔더니 과연 그 노인이 있었



구례 오산에 위치한 산정석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는데, 모래를 쌓아 산천의 순역(順逆)에 따르는 형세를 만들어 그 이치와 길흉화복의 근원을 가르쳐주고는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연유로 사람들은 그곳을 사도리(沙圖里)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도선국사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일행선사(一行禪師,638~727)에게 천문과 지리를 배우고 돌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생몰(生沒)의 연대가 백년의 차이가 있는 잘못된 와전이며, 도선국사는 이인(異人)으로부터 음양오행과 산천순역(山川順逆)의 비보법(裨補法)을 배우고 그 이치를 깨우침으로서 마침내 풍수지리에 대한 신안(神眼)이 열리게 된 것이다.

도선국사는 곡성 태안사에서 풍수지리에 입문한 이래 섬진강변의 모래밭에서 지리산 산신으로 알려진 이인으로부터 형기(形氣)를 배우고, 그 건너편에 있는 오산의 산정석굴에서 풍수지리의 오묘한 이치를 깨우쳤으며, 순천의 운동산 도선암에서 비보풍수(裨補風水)를 완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선국사는 우리나라를 행주형(行舟形)으로 파악하였다. 태백산과 금강산이 뱃머리이고, 월출산이 배의 꼬리부분이며, 부안의 변산이 키이고, 지리산이 노(櫓)이며, 화순의 운주산은 선복(船腹)으로서, 이곳에 불상과 사탑을 세워 비보를 하게 했다. 특히 운주산은 지세와 지기가 강력하게 요동치는 곳이므로 천불천탑을 세워 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연유로 세간에서는 도선국사를 선승이 아닌 밀교의 술승(術僧)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결코 사악한 술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주형(行舟形)으로 파악

도선국사가 만약에 한갓 술사(術士)에 지나지 않았다면, 소위 “하늘이 주지 않고, 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天不貽, 地不受)는 천리를 거부하거나, 주인이 아니라고 밀쳐내고 파혈시킨 산신의 신장(神將)을 멸하거나, 구천파묘(九穿破墓)와 초혼이천(招魂移遷)으로 비봉포란 보다 더 좋은 곳에 영장(靈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도인(道人)다운 풍모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도선국사의 능력이면 이런 사소한 공사(道力으로 願力을 이루는 도인의 일)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순리(順理)에 따르는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는 아무리 명당에 묘를 써도 천리를 따르지 않거나, 덕을 쌓지 않으면 발복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파혈될 수도 있음을 일깨워 주는 도행으로서 도선풍수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풍수지리의 술사가 아닌, 선풍도골(仙風道骨)의 이인(異人)이었으며, 35년 동안이나 광양 백계산의 옥룡사에서 연좌망언(宴坐妄言)한 도인이었음이 분명하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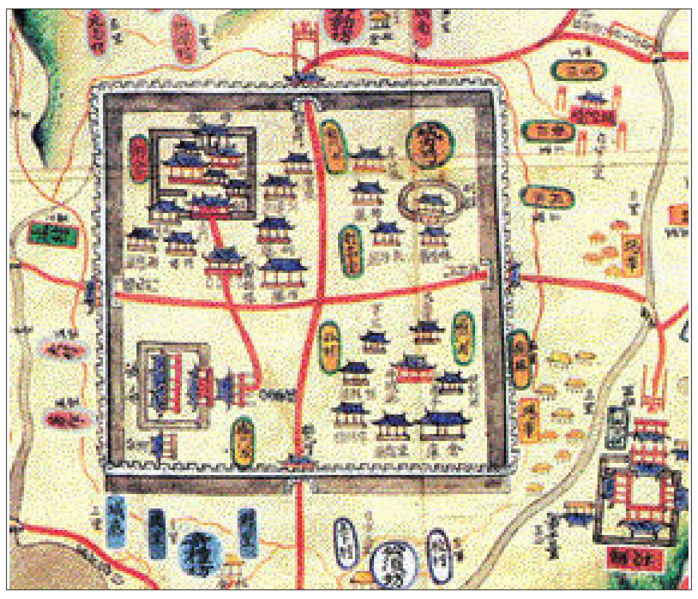
■ 전라도 역사이야기

-네모난 광주읍성과 문화수도의 미래

고려말 옛 도청자리에 축조 문화전당, 발굴조사도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구 전남도청 자리에는 고려말 조선초에 축조된 광주읍성이 있었다. 군현의 치소(治所)를 둘러싼 성을 읍성이라 하는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조선후기 지방지도 -전라도편’(1872년경)을 보면, 전라도 각 고을의 읍성 모양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읍성들 모양은 둥그렇다. 둥그런 모양을 기조로 땅의 생김새에 따라 길쭉하기도 하고 삼각 꼴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읍성들 중 격자형 구조를 가진 네모난 읍성이 있어 눈에 띈다. 바로 남원과 광주의 읍성들이다. 남원은 신라 5소경 중 하나로 당나라의 유인궤가 읍내에 정전법(井田法)을 써서 9개 구역으로 나누었다고 전해 오는데, 그 위에 읍성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네모반듯한 격자형 구조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광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광주는 통일신라



1872년 고지도에 그려진 광주읍성.

기 9주 중 하나로 무진주라 불렸고, 그곳에 세워진 무진도독성은 역시 당나라의 도로망을 따라 격자 가로망 구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세기 말경에 조성된 광주읍성은 이 무진도독성의 격자 가로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모난 모양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네모난 격자 가로망이 말해 주듯이 광주읍성은 통일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광주읍성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무자비하게 철거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금 겉으로는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최근에 들어 두어 차례 부분적인 지표 및 발굴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 옛 흔적의 일부를 찾아냈지만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그 중심시설이 땅 속에 만들어진다고 들었다. 전당의 건설과 함께 광주 문화도시의 새 시대는 시작하지만, 땅 속에 담겨 있던 구 시대 역사의 흔적들은 자칫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지도 모른다. 그 공간의 역사성을 지켜내면서 전당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철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신라기의 무진도독성 위에 세워진 광주읍성지의 발굴은 광주의 원초적 기원을 찾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다.

광주의 변화를 예고하는 시금석처럼 시대가 변할 때마다 그 변화를 지켜보며 스스로 변화했던 공간, 광주읍성터! 그 밑에 감추어진 역사를 바로 밝혀 아시아문화전당의 새로운 미래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이다.

/고석규·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깨미’는 ‘~할까봐’의 의심스러운 표현

(14) 누가 뺏어 먹으깨미?

‘-(으)ㄹ까 봐’/ ‘-(으)ㄹ까마’ 표준어의 ‘-(으)ㄹ까 보다’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미래나 과거의 일을 추측하되 의심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 부사형이 ‘-(으)ㄹ까 봐(서)’다. 그런데 이에 대응한 말이 전라도방언에서는 대개 ‘ㅂ’이 ‘ㅁ’으로 바뀌고 앞의 ‘ㄹ’이 탈락한 ‘-(으)까마, -(으)까마니, -(으)까미, -(으)깨미’ 등의 변이형으로 실현된다. 즉 “나한테 돈이 없으까마/없으까마니/없으까미/없으깨미 그러냐? 누가 보(볼)까마/보까마니/보까미/보깨미/봤으깨미 걱정이냐?”와 같다.

위의 ‘-(으)깨미’형이 미래·과거의 일을 추측하거나 의심하는 뜻이라면, ‘-은가미/-은개미’형은 현재의 상황에 초점이 있다. “애기가 잠을 잔가미/잔개미(자는가 싶어) 살쨱(짝)이 문을 열어 봤지라우.” 이 말도 결국 ‘-은가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가미’는 ‘있-, 없-, 었-’ 뒤에서는 ‘-는가미/-는개미’로 변동한다. 한편 ‘-(으)깨미’와 같은 뜻으로 ‘-(으)깜시/-(으)깜수와(서)’와 같은 말도 있다. “누가 뺏어 가(갈)깜시/가깜수와서 숨키냐?” 이런 말도 ‘-(으)ㄹ까 무서워(서)’가 변이된 형태다.

/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바위취

범어귀과에 속하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식물로 그늘진 습한 바위틈에서 주로 자란다. 키는 50㎝ 정도, 남부와 중부지방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아주 작은 꽃이 앙증스럽게 예뻐 요즘에는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기도 하지만 약재로 쓰인다.

/라규채 생태사진가